

불황에 돋보인 효성 조석래 회장 ‘기술경영 신화’

2년 연속 영업이익 1조 달성 예상... 섬유·중공업 등 전 부문 고른 수익 전주 탄소섬유공장 등 호남사랑 각별...“투자가 기업 경쟁력” 신념 확고

경기불황 속에 효성 조석래(사진) 회장의 ‘기술경영 신화’가 주목받고 있다. 올 상반기 기업들의 실적발표가 마무리 되는 가운데 효성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영업이익 1조 이상을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효성은 창사 후 최초로 3000억원이 넘는 분기 영업이익과 5000억 원대 분기 영업이익 실적을 달성했다.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기술개발에 아낌없이 투자한 조 회장의 생산 중심 경영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재계도 이 같은 효성의 놀라운 실적이 조석래 회장의 기술중심경영에서 비롯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효성은 호남에도 전주에 탄소섬유공장 등을 가지고 있다. 특히 효성은 섬유와 산업자재, 중공업, 화학 등 전 사업부문에서 고르게 이익을 냈으며 분기 영업이익이 3000억원을 넘은 것은 1966년 회사 설립 이후 처음이다. 스판덱스와 타이어코드 등 세계 1위 제품의 판매 호조는 물론 산업자재 및 중공업, 화학 등 전 사업 부문에서 긍정적인 실적을 나타냈기 때문이다. 이는 무엇보다 기술에 대한 조석래 회장의 각별한



효성 회장

애정이 원동력이 됐다. 실제 스판덱스와 타이어코드, 초고압압입기, 탄소섬유, 폴리케톤 등이 조회장의 기술경영이 낳은 성과물이다. 베트남과 중국, 터키 등 해외 생산법인도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있다. 효성은 2007년 9억9000만달러를 투자해 베트남 법인을 설립하는 등 세계 34개국에 생산 법인을 두고 있다. 효성 관계자는 “경영 전반을 꼼꼼하게 챙기는 조 회장의 기술중심 경영 방식이 불황 때 사상 최대 이익을 가능하게 한 배경”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재계의 신화를 써낸 조 회장은 재계 CEO 가운데 드문 공학도 출신인데다 미국과 일본에서 수학한 경험을 살려 소재산업에 일찌감치 주목했다.

경기도를 나와 일본 와세다대에서 응용화학을 전공하고 세계 5대 공과대학인 미국 일리노이대에서 화학 석사를 받은 조 회장은 끊임없는 연구를 강조, 오늘날 효성을 세계 굴지의 R&D기업으로 키워냈다. 우리나라에서 민간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역사는 길지 않다. 지난 1971년에 설립된 효성그룹의 기술연구소(현 효성기술원)가 국내 최초의 민간기술연구소로 꼽힌다. 조 회장은 연구소를 통해 새로운 수익 창출을 위한 신소재 개발을 독자기술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특히 ‘개발 없이는 경제성장도 없다’는 조 회장의 철학은 효성을 폴리케톤 외에도 스판덱스, 타이어코드, 초고압압입기 등 전 세계 1위의 시장 점유율을 가진 독자 기술개발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매일 미국과 일본에서 발간되는 신문과 신간 화학저널을 받아보며 아직도 연구진에게 기술적인 주문을 하고 있으며 해외 경제 석학들의 경영관련 서적을 많이 읽는 독서광이기도 하다. 조 회장은 기업경영활동 외에도 ‘민간



효성 화학부문은 유럽·아시아 등을 대상으로 TPA·폴리프로필렌 수지 등을 활발히 수출해 국가경제 발전에 크게 이바지해왔다. 뛰어난 품질의 나일론 필름·폴리에스터 필름 등 다양한 제품을 통해 일상생활의 편리함을 증대시키고 있다. <효성 제공>

경제외교관’으로도 오랜 기간 활동했다. 한·일 경제협력회 회장을 맡아 한·일 FTA 체결 추진 등 한일 재계의 현안 이슈 해결에 앞장섰고, 2009년까지는 한·미 재계위원회 한국위원장을 맡았다. 또한 지난 2004년까지 태평양연안경제협력회(PBEC)회장을 역임해 한국 재계의 세계적 위상을 높인 바 있다. 특히 지난 2009년 6월 서울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에서는 원고 없이 20여 분간 영어로 각국 참가자들에게 한국경제 실상을

호소, 적극적인 호응을 이끌어 내 경제계에서는 신화로 남아있다. 조 회장의 이 같은 집념은 선대로 이어진다. 창업주인 조흥재 회장의 ‘기술자립’ 철학은 효성에 그대로 녹아 조석래 회장에게 이어졌다. 효성은 IMF 위기 속에서도 ‘투자가 곧 기업의 경쟁력’이라는 조 회장의 철학과 기술 경영에 대한 확고한 신념으로 외환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며 글로벌 일류 회사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조 회장은 호남을 사랑하는 기업인으로 알려져 있다. 2013년 5월 준공돼 전주 경제를 일으킬 산업으로 평가 받고 있는 효성의 탄소섬유 공장이 대표적인 예다. 전국 각 지자체의 공장유치 요청에도 불구하고 호남을 선택한 것도 조 회장의 각별한 호남사랑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100만년 걸릴 걸 1시간만에... 양자컴퓨터 상용화 길 열렸다

양자컴퓨터는 양자역학적 원리에 따라 작동되는 미래형 컴퓨터다. 이 컴퓨터가 실용화된다면 기존 컴퓨터로 100만년 이상 걸리는 암호화 프로그램을 한 시간 이내에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계산이 오래 걸려 기존 컴퓨터로는 시도할 수 없는 복잡한 시뮬레이션도 양자컴퓨터는 금방 처리할 수 있어 의약품과 신물질 개발 등에 획기적인 발전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최근 다양한 연산을 수행할 수 있는 소규모 양자컴퓨터가 개발됐다. 크리스토퍼 먼로 미국 메릴랜드대 교수팀은 이온을 가둬두는 ‘이온덫(이온트랩)’을 이용해 양자컴퓨터를 구현했고 컴퓨터가 90~95%의 정확도로 연산을 수행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4일(현지시간) ‘네이처(Nature)’에 발표했다. 이 양자컴퓨터는 이온트랩으로 고정된 5개의 큐비트(qubit)로 구성됐다. 정연욱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양자측정센터 책임연구원은 “큐비트는 양자컴퓨터

터의 정보저장 단위”라며 “개념적으로는 일반 컴퓨터에서 디지털 신호의 단위인 ‘비트’의 양자역학적 형태에 해당하고, 하드웨어적으로는 반도체 소자에서 트랜지스터에 해당하는 기본구성요소를 지칭한다”고 설명했다. 이 컴퓨터는 레이저를 이용해 이온의 상태를 조절하고 연결해 연산을 수행했다. 연구진은 컴퓨터가 안정적으로 구동한다는 것도 확인했다. 정 연구원은 “이번 연구는 그간 실험실 수준에서 구현됐던 이온트랩 방식의 양자컴퓨터를 스케일업 해 구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라고 연구의 의의를 설명했다. 현재 양자컴퓨터 구현에는 이온트랩 방식과 함께 초전도 방식이 유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초전도 방식은 특정 온도 이하에서 물질의 저항이 사라지는 현상을 이용하는 것인데 구글과 IBM 등이 이 방식에 주력하고 있다. <연합뉴스>

복지부, 청년수당 사업 직권취소... 서울시 “대법원에 제소”

보건복지부가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 집행을 중단하는 직권취소 조치를 했다. 서울시는 이에 불복, 대법원에 제소하기로 해 청년수당 갈등이 법정 소송으로 비화할 전망이다. 복지부는 4일 “시정명령을 3일 내렸으나 서울시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직권취소 조치를 했다”며 “서울시는 청년수당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복지부의 반대에도 전날 3000명의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중

청년수당 약정서에 동의한 2831명에게 활동지원금을 기습적으로 지급했다. 이에 복지부는 즉시 대상자 선정을 취소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시정명령 이행 기한은 4일 오전 9시로 정했다. 서울시가 이행 기간 내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자 복지부는 이날 오전 9시20분경 서울시에 공문으로 직권취소를 통보했다. 통보를 받은 서울시는 이날 오후 브리핑을 열어 “대법원에 복지부의 직권취소에 대한 취소처분 및 가처분을 구하는 소

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169조는 “지자체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해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복지부 장관이 그 지자체장에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자체장이 취소·정지 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처분을 통보받은 지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서울시는 “시간을 갖고 법률 검토를 거

쳐 소송을 낼 계획”이라며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청년수당은 자치사무인 만큼 이미 지급한 수당을 환수하지는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직권취소에 따라 전일 약정서 등의 등 절차 미비로 수당을 지급하지 못한 청년 169명에게는 수당 지급이 어려울 것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시는 브리핑에서 먼저 “정부와 갈등으로 불안감을 느끼고 있을 청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면서 “모든 수단과 조치를 통해 청년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건보 체납 사업장, 국가·지자체·공공기관 사업대금 못받는다

앞으로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장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과 계약한 사업 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제도가 시행되면 경영 사정이 어려워진 회사가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줄어들게 된다.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보료 납부의무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

는 공공기관으로부터 공사·제조·구매·용역 등 계약의 대가를 받는 경우 보험료 등의 납부 사실을 증명하도록 하는 ‘건강보험료 납부 증명제도’가 이날부터 시행된다. 건보료 납부증명 제도는 지난해 2월 신설된 건강보험법 제81조3(보험료 납부증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에 근거를

했다. 적용 대상은 시행일 이후 계약 대금 지급 대상부터다. 다만, 계약 대금을 체납 보험료로 납부하거나 일상경비로 받는 계약은 건강보험료 납부증명 발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민연금의 경우 지난해 12월 비슷한 제도의 연금 납부 증명제도 가 이미 시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건보공단 자료를 보면 2014년과 2015년 건보료 체납 사업장은 각각 4만1000곳, 3만9000곳에 이르며 체납보험료는 2962억, 2984억원에 달한다. 올해 상반기까지 건보료 체납 사업장은 3800곳으로 체납보험료는 2978억원에 넘어섰다. 사업장이 건보료를 체납하면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급여에서 건보료의 절반이 공제됐을에도 건보료 납부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건보료 미납’으로 표출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한다. <연합뉴스>

公國 2016 漢字·漢文指導師資格
※ 教育部 國家公認 研修生募集

구분	광주여자대학교(23기)	광주교육대학교(14기)
개강일시	· 금요일 오전반 : 2016. 9. 2(금) 08:10(8교반) · 토요일 오전반 : 2016. 9. 3(토) 08:10(8교반)	· 월요일 오전반 : 2016. 9. 5(월) 08:10(8교반) · 월요일 오후반 : 2016. 9. 5(월) 14:10(8교반) · 목요일 오전반 : 2016. 9. 1(목) 08:10(8교반) · 토요일 오후반 : 2016. 9. 3(토) 14:10(8교반)
모집기간	2016. 8. 1(월) ~ 9. 3(토)	2016. 8. 1(월) ~ 9. 3(토)
수업기간	2016. 9. 2(월) ~ 2017. 2. 11(토) (6개월 24주 96시간)	2016. 9. 5(월) ~ 2017. 2. 11(토) (6개월 24주 96시간)
수업시간	· 오전반 08:10~13:00 · 오후반 14:10~18:00	· 오전반 08:10~13:00 · 오후반 14:10~18:00
수강료	₩ 360,000 (예금주 : 광주여대) · 광주은행 : 148-107-307803	₩ 360,000 (예금주 : 광주교대) · 국민은행 : 773901-01-476736
수료후 특전	· 12단계 연수과정 이수시 행정 영의 수료증 수여 · 국가 공인 기관 한자교육진흥회 한문지도사 자격취득 기회 부여 · 각 학문 학원 강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 각 급학교 방과 후 교육 강사 추천 ·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 (3급·사법직특기회 부여)	· 12단계 연수과정 이수시 행정 영의 수료증 수여 · 국가 공인 기관 한자교육진흥회 한문지도사 자격취득 기회 부여 · 각 학문 학원 강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 각 급학교 방과 후 교육 강사 추천 ·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 (3급·사법직특기회 부여)
원서교부 및 접수처	· 문 의 : 062)950-3582~4 · 지도교수(선빙공) : 010-3614-4180 광주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always.kwu.ac.kr	· 문 의 : 062)520-4243 · 지도교수(선빙공) : 010-3614-4180 광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www.gnue.ac.kr/

말하는 법 1%만 바뀌도 인생이 바뀐다~!

www.kleader.kr
말 잘하게 하는 특별한 방법!
어머니스피치교실
"내가 말을 잘하면 내 자식도 말을 잘한다"

아버지 스피치 교실

초·중·고·대학생 등을 위한
학생부 스피치 교육

스피치 교육은 단순히 스피치만 잘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스피치를 잘하게 됨으로써 **교우관계에서 리더가 되고, 자신감을 갖게 됨으로써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되어 성적이 올라가게 되어 성격이 적극적으로 변하는 등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스피치 트레이닝을 빨리 할수록 효과가 높습니다.**

성공을 부르는 스피치~!
직장인 스피치

면접 준비 없이 나간다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본원에서는 기업체·공공기관·임용고시·경합직 등등 취업을 목적으로 한 면접준비 실전과정을 통하여 취업을 맞출 수 있습니다.

★ 각 분야별 강사 파견 : 강사가 필요한 곳에 강사를 파견해드립니다.

☎ 062)222-2255, HP. 010-9441-7000
한국스피치리더십교육원

20년 전통 (주)호남경매
법원경매 이달의 추천물건

★ 금매 하남 3지구 상업지역 대지 132평 8차선대로변 전면널을 상권최상 프랜차이즈상당 ▶ 거래가 18억원

- 담양군 수북면사무소 북동측인근 임야2428평 계획관리지역 투자기회! 저대낮음 준보전산지 ▶ 감평가 2억2천 최저가 2억2천
- 담양군 담양읍 5층숙박시설 450평 객실28개 토지140평 투자기회! 우수 ▶ 감평가 10억원 최저가 4억5천(감평가 45%)
- 광산군 신창동 신축3층원룸건물108평 대지70평 방11개 수문초,신창중학교 위치 및 건물최상 ▶ 최저가4억7천만원
- 북구 중흥동 광주역 8차선대로변 상가 2층건물 136평 토지 222평 준주거지역 ▶ 감평가 11억9천 최저가 8억3천

상가,토지,병원,사옥,창고부지 매매상담

- 광양시 광양읍 구산리 2층건물109평 대지155평 코너위치 음식점 추천,주공아파트후문 ▶ 감평가 7억2천 최저가 4억원
- 북구 우산동 숙박시설 4층건물208평 대지 65평 객실 17개 지하주차장있음 상업지역 ▶ 감평가 4억8천 최저가 2억7천만원
- 북구 오치동 3층다가구주택 건물105평 토지58평 건물양호 사산초등학교근접 ▶ 감평가 3억5백 최저가 2억2천만원
- 광산군 대산동 공장 건물172평 토지685평 잡종지 창고 및 교육상추천 도로접 ▶ 최저가 2억7천만원

(주)호남경매 김용희이사
010-7147-4989

NPL 투자비법과 경매
(수강생 선착순 모집)

‘저금리 시대’ 투자대안, NPL실전문자비법
명쾌한 이론 + 실전사례 중심 강의 + NPL물건추천

주식투자에 연연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경매를 하고 있습니까?
제로금리시대, 불안하나요?
퇴직이후가 걱정되나요?
노후대책이 없나요?

이 시대 최고의 재테크!!
경매를 뛰어 넘는 재테크!!

교육특징
돈받고 세금까지 절세하는 NPL투자 7가지 핵심 수익극대화 비법!
NPL 추천물건 위치, 실전사례 중심 강의! NPL고수가 되는 절호의 기회!
타 교육기관보다 체계적이고 명쾌한 실전문자 물건위주로 강의!

2016년도 2학기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

- 모집기간 : 2016. 7. 18(월) ~ 2016. 9. 9(금)
- 수업기간 : 2016. 9. 8 ~ 2016. 12. 8
매주 목요일 주간 10:00~12:00 야간 19:00~21:00
- 수 강 료 : 18만원 (예금주:조선대학교) 광주은행 004-107-000152
- 신청방법 :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http://chosun.ac.kr/lifelong
- 접수문의 : 062)230-7700~2 지도교수 : 송용욱 010-9416-1200